

상시시험 종목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워드프로세서〉는 585만 명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된 명실공히 국민자격시험으로 워드프로세서 운영 및 편집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자격개요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단일등급 (구1급)	필기	워드프로세싱 일반 PC 운영체제 컴퓨터 및 정보활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문서편집기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실기프로그램 : 한글 2010, MS 워드 2010

합격결정 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2018년 시행일정

상시시험 (전국 51개 상공회의소 상설검정장에서 상시검정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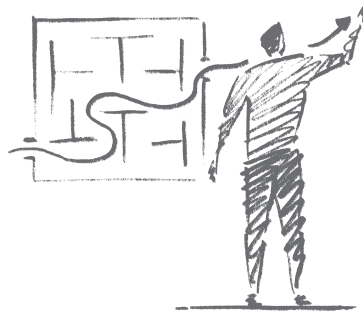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실기	단일등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2주 후 금요일

정기시험

회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단일등급	02.07~02.13	03.03	03.22
	실기	단일등급	03.22~03.28	04.14	05.15
2회	필기	단일등급	08.09~08.17	09.01	09.27
	실기	단일등급	09.27~10.03	10.20	11.20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노력이 될 수 없다

신세현



유년시절, 정확히 작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행동에 대한 부적응으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소아정신과를 내원했고, ADHD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겐 5살 때부터 만진 컴퓨터만이 유일한 친구이자 벗이었고, 고장 난 컴퓨터를 분해해 장난감처럼 놀았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사고가 깨어날 수 있었고, 더딘 학습능력은 아주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은 깨어난 사고에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게끔 하여 집단 따돌림 속에서의 게임 퀘스트처럼 자격증 취득이 돌파구가 되었고,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더 큰 치료효과를 발휘하여 어두운 통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첫 번째 자격증 퀘스트인 워드프로세서와 '불가능은 없다'의 신념과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노력이 될 수 없다'의 신조로 매번 무한한 오버클럭의 단초가 되어준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장을 만든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최근 저와 같이 ADHD 진단을 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학사 학위를 받은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커뮤니케이션학 졸업생 피비를 보며 용기 내어 다음과 같은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몰랐던 바보의 성공

제게 있어 컴퓨터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다루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이지만 중학생 때 저의 모습은 단순히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턴 컴퓨터 교과목이 있었지만 전교 꼴등을 차지할 정도로 공부방법을 몰라 수행평가 실습에서의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필기와 암기위주의 학업평가로 인해 좋아하는 컴퓨터 과목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교과목의 낙제점은 저에게 처음으로 승부욕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고, 처음으로 컴퓨터 공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부에 흥미를 가졌음에도 한동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더딘 학습 능력 탓에 공부 방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ADHD의 과잉행동으로 학교, 학원 어디에서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기에 공부 자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2년 당시 중학교 2학년 가을이 되고나서야 부모님 손에 이끌려 기존 종합학원을 끊고 컴퓨터학원에서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당시 워드프로세서 2급과 3급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자 컴퓨터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워드프로세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 후 공부에 전혀 관심 없었던 저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하여 당장 학업성적의 변화로 나타나진 않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격증에 대한 성취욕은 학업성취평가에 불참하고 평일 실기시험을 보러갈 정도였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학구열을 못마땅하게 본 동기들은 학업성취평가 미응시를 핑계로 학교성적보다 컴퓨터가 좋으면 나가서 실컷 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처음엔 일일이 반응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컴퓨터공부와 학업 탐구에만 전념하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을 포함한 7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시점이 되자

인문계고교가 아닌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목에서 최하위권 혹은 전교꼴등을 여러 번 한 탓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원서를 낸다 할지라도 합격 확률이 극히 적어 담임선생님조차 평준화 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원서를 제출했고, 합격 커트라인 점수인 0.5점 차이로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최하위 내신을 기록하여 서류합격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당시 자격증 가점제도로 인해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이 적용되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통해 얻은 무한한 학업 탐구는 중학교 때 미완으로 매듭짓지 못했던 학업성적에 큰 변화를 주어 첫 중간고사 때 평균이 50점이나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예상치 못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점차 올라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수학, 영어, 과학과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분야에서 전교 1등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실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로부터 전교 1등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제 자신의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격증취득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기간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은 저에게 첫 좌절감을 주며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노력이 될 수 없다'라는 신조와 동시에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영학, 컴퓨터공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어 대학생조차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승부욕을 부르고

제 자신도 처음엔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모두들 반대하였지만 전자상거래운용사 합격으로 생긴 자신감과 고등학교에서 전자상거래 전공 중인 학생으로서의 의무감으로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고, 처음으로 자격증 필기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불합격은 승승장구하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루하루 더 나은 노력 끝에 필기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대입을 준비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HTML, JAVASCRIPT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IIS등의 서버운용을 다루는 실기에서도 필기 불합격을 거울삼아 더욱 공부하였고, 2006년 7월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을 최종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 자격증 인연

전자상거래관리사 합격 이후 여유를 뒤로한 채 대입에 뛰어들었고, 자격증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평가를 받는 각기 다른 전형에서 합격하여 총 6곳의 대학에 합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증소지자 전형에서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과 유통관리사 2급의 취득경력을 인정받아 서류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졌고, 면접 때 전자상거래관리사를 공부하며 얻은 신념과 신조로 자신 있게 답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학업 방향성에 대한 차이와 솔로 변질된 학교생활로 인해 2009년 3월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자퇴 후 산업경영학을 계승하여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접하면서 제 자신을 위해 학습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고자 마음먹었고, 다양한 방법의 학점인정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학점인정대상 중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과 유통관리사 2급이 대학 3학기에 해당하는 51학점을 인정받아 순식간에 2009년 8월 우수한 성적(4.06/4.5)으로 조기졸업 할 수 있었습니다. 자퇴 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전자상거래관리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은 힘이 되어주었고, 고등학교 때처럼 다시 자신감을 가져 경영학 외에 다른 분야의 학문적 연계성을 탐구하고자 전자계산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제도개정으로 전자계산학을 이수하던 중 전자상거래운용사 또한 24학점의 학점취득을 인정받아 경영학 졸업 후 1년 만에 2010년 8월 다시 우수한 성적(4.25/4.5)으로 두 번째 졸업과 함께 우수한 성적으로 두 개의 학사학위 취득을 인정받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학위수여식에서 2011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특별상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으로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입 도전에도 성공해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문헌정보학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정보학에서의 성과를 뒤로 한 채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운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노력이 될 수 없다'의 신조와 '불가능은 없다'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감과 동시에 하루하루 더 나아진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업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워드프로세서에서 얻은 학문적 탐구를 잊지 않기 위해 현재 체육학을 부전공과 함께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기를 빌어 제 믿음과 신념을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아울러 이 두일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